

테보라 스미스의 『소년이 온다』
번역, 과연 탈식민적 번역일까?

계명대학교 이지민



목차

- 배경
- 목적
- 논의
- 결론



배경

- 데보라 스미스의 『채식주의자』 번역 수상 후 데보라 스미스의 연이은 번역이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함
- 동일 번역가 『소년이 온다』 번역본은 더블린문학상 후보(2018),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(이탈리아어, 2017)
- 데보라 스미스의 『소년이 온다』 번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 존재
 - 조의연(2017) - 이탤릭체 연구
 - 이지민(2018) - 정보성 조정
 - 신상범(2020) - 미학적 문체, 자국화, 정보성 조정
 - 윤미선, 박건영(2019) - 독자 수용
 - 김대중(2021) - 번역을 통한 원문의 변형과 문화 및 정치적 의미의 훼손
 - 윤선경(2021) - 탈식민주의 행위로서의 번역



목적

- 기존 연구 중 “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곁 텍스트, 원어 사용, 사회 및 정치적 배경 설명 추가를 통한 탈식민주의적 행위였다”는 주장에 대한 논의



우리나라 작품이 해외에 수용되는 방법

- 엽기적, 자극적인 이국적 소재
 - 김기덕 감독의 『섬』, 『사마리아』, 『빈집』
 - 임권택 감독의 『씨받이』
 - 한강의 『채식주의자』
- 만국공통 정서에 어필
 - 『미나리』, 『기생충』
 - 『엄마를 부탁해』



『소년이 온다』 작품 소개

- 배경

- 5.18 광주항쟁 (1980년 5월 18-27일. 광주에서 계엄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발단으로 광주 국민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국가의 군대에 의해 국민들이 죽음을 당함) 당시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이후의 삶(2010년까지)

- 부마항쟁

- 전두환 통치

- 플롯 - 각 장마다 화자와 시기가 다름

- 1장: 동호 1980. 5. 21-. 계엄군이 일시 퇴각하고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한 5월 21일 이후.

- 2장: 정대 1980. 5. 18-21. 계엄군 공격

- 3장: 김은숙 1985. 출판사. 1980. 5. 26 도청을 빠져나온 것에 대한 후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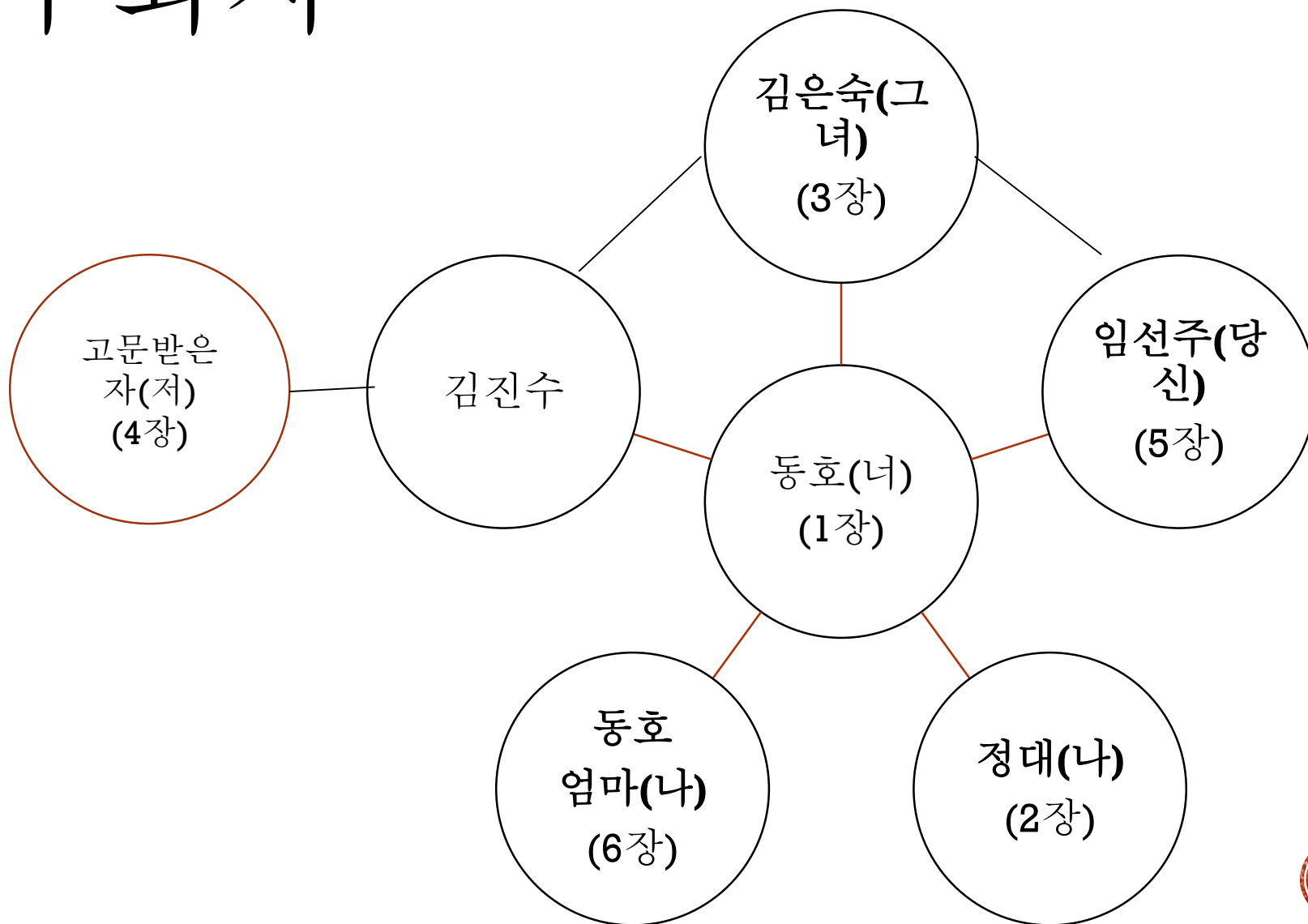
- 4장: 1990. 김진수의 10년간의 행적에 대한 증언

- 5장: 2002. 임선주 . 현재와 과거의 교차 편집

- 6장: 2010. 동호엄마. 아들에 대한 회상



장별 인물과 화자



논의 1

- 결텍스트를 활용해 배경 설명 제공



- 데보라 스미스가 이해한 당시 정치·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, 한강이 소설에서 개별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

- 정보성의 측면에서 독자의 본문 이해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은 있을 것이나, 서구 번역자인 스미스 식의 해석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해석을 미리 프레이밍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적이라 할 수 없다.

- '원작 작가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형성한 미적 총체성과 혼란을 무시' (김대중)



논의 2

- 이국화 전략의 사용
 - 태극기, 평, 리(里) 그대로 사용
 - 언니, 선생 등의 호칭 그대로 사용(cushioning)
 - HANguel, hanja를 설명 없이 사용



- 오히려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생략한 부분이 절대 다수
 - 어휘 수준뿐 아니라 구, 문장, 텍스트 수준에서 오류 발견



어휘 수준의 삭제

- 그러다 너를 본 건 금남로에서였어.
□ That was when I saw you, Dong-ho.
- 중흥동 집 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...
□ When we sold the hanok and moved,



문장 수준의 삭제

- 여름이면 콧잔등을 타고 자꾸 안경이 흘러내린다고, 겨울엔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안경알에 김이 서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작은형이 그랬는데. (동호, 1장)
- 난 내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었어(정대, 2장)
- 고지식한 그녀가 사양할 것을 알면서 묻는 것이었다(편집장, 3장).
- 군인들이 가진 수천정의 총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, 쇠가 몸을 뚫으면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, 더웠던 몸들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.(진수의 동료, 4장)
- 누군가 말하며 복숭아 조각을 당신의 입에 넣어주었다.(누군가, 5장)
- 당신은 휴대용 녹음기를 책상에 내려놓는다. 캐비닛을 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다. 윤의 논문을 꺼내 녹취록의 첫머리를 펼친다(선주, 5장).



텍스트 수준의 삭제

- 2장 정대가 혼이 되어 돌아다니는 부분 모두 삭제
- 3장 박양에 대한 묘사와 에피소드 모두 삭제
- 6장 광주 진압의 잔인함에 관한 작은 엄마들 대화 삭제



삭제

- 인물

점심시간을 앞두고 인쇄소에서 박양이 왔다. 여고 학생복 같은 감색 반코트에 운동화 차림이었다. 인쇄소 사장의 친척이라는 박양은 나이에 비해 녀살이 좋은데다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어서 누구나 좋아했다.

□ **The publisher's niece, a lively, cheerful young woman who frequently ran errands for them, dropped by the office just before lunch.**

윤 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.

□ **With Yoon making three the office would be empty,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e by the junction.**



변경

- 제목: 소년이 온다 □ **Human Acts**
- 소제목:
 - 1장 어린 새 □ **THE BOY, 1980**
 - 2장 검은 숨 □ **THE BOY'S FRIEND, 1980**
 - 3장 일곱 개의 뺨 □ **THE EDITOR, 1985**
 - 4장 쇠와 피 □ **THE PRISONER, 1990**
 - 5장 밤의 눈동자 □ **THE FACTORY GIRL, 2002**
 - 6장 꽃핀 쪽으로 □ **THE BOY'S MOTHER, 2010**



변경

- 플롯

3장 일곱 개의 뺨

그녀는 일곱대의 뺨을 맞았다. (p.65)

71페이지에서 김은숙임을 알 수 있음



3. The Editor, 1985

At four o'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, the editor Kim Eun-sook received seven slaps to her right cheek. (p.65. 첫문장)



변경

- 플롯

6장 꽃핀 쪽으로

전술된 에피소드를 통해(형, 작은 형, 건넌방 살던 남매..) 화자가 동호의 엄마임을 추측만 할 수 있음

동호야!라고 부르는 건 해당 장의 마지막 페이지

□

The Boy's Mother, 2010

제목에서 이미 화자가 동호의 엄마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화함



호칭 사용

- 언니(tonni)와 선생(seonsaeng) 사용



tonni는 특정 부분에서만 세 번,

seonsaeng은 단 한 번,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영어식 호칭으로 대체

-서선생: **Mr. Seoh, sir**

-임선생: **Miss Lim**



의견 3

- 한국적 문화 지칭 용어를 그대로 둠

↔ 생략, 변경(자국화)가 오히려 더 많음

그러다 너를 본 건 금남로에서였어.

- That was when I saw you, Dong-ho. (금남로 없음)

중홍동 집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...

- When we sold the hanok and moved, (중홍동, 삼각동 없음)

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. (함바집 □ café)

- With Yoon making three the office would be empty,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é by the junction.

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.

- I scooped some stir-fried anchovies out of a Tupperware container and onto a plate, then some beans boiled in soy sauce.



의견 4

- 원작의 문화에 충실했다(한국 나이 시스템을 고려한 번역)

↔ 오히려 나이, 층수 번역에 일관성 결여

- 나이

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열아홉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.

□ Eighteen years old and passing by on the bus, she'd screwed her eyes tight shut.

- 층수

위태하게 이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었다.

□ You stood there clinging to the second-floor railing, trembling.

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열일곱살이었다.

□ You were seventeen when you first heard it described that way.

여자들은 이층에 모여 있어.

□ women were all supposed to go up to the first floor.



의견 5

- **Literal translation**이 아니라 **literary translation**이다
- 스타일, **effect, tone, rhythm, resonance**에 관심
- 원작의 예술성과 속성(**quality**)에 충신했다

예: 열무처럼 가는 종아리로 □ **legs as skinny as young radish**

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□ **the hibiscus has blossomed**



굳이?

오히려 스타일에 치중한 나머지 인물의 성격을 해치는 과도한 의역이 더 많다



의견 5 - 계속

슬래잡기는 왜 **hide-and-seek**으로 번역했는가?

‘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’는 ‘**green light, red light**’라는 거의 동일한 게임이 있는데?

(오징어게임 참조)

- 과도한 문학적 비유

천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. 뭉클뭉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.

□ **Riding my bike beside the river, racing along with the wind strong in my face, parting it before me like a ship's prow slicing through water.**

다시 말없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 무대 오른편을 본다.

□ **The woman turns now to the right, still silent as a marionette.**



결론: 과연 데보라 스미스는 원작에 대한 탈식민적 번역을 수행했는가?

- 그렇지 않다

- 오히려 번역 독자들 중심으로 곁텍스트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작가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.

- 원작을 어휘, 문장, 텍스트 수준에서 유지, 변경, 삭제 전략을 자유롭게 사용했다.

- **Human Acts**의 서문에서도 독자의 이해를 위한 변경을 설명했고,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계기 국제인문포럼에서도 ‘독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’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.

- 비균일적으로 선별한 예시만으로 탈식민적 번역이라 볼 수 있는가?



생각해 볼 점

- 이국화와 자국화는 이분법적 분류(**dichotomy**)
 - 그 사이의 다양한 전략은 어디에 속하는가?
축어역 + 설명은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?
 - 어휘 수준에서 이국화가 자국화가 섞여 있다면 전체로는 이국화 번역인가 자국화 번역인가?
- 자국화는 항상 제국주의/식민주의적 번역이라 할 수 있는가?
- 번역자는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을 동일 작품 내에서 일관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,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(실제로 국제상 수상 번역자 **Jake Levine**도 그렇게 답했다). 그렇다면 이국화와 자국화의 구분은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?



감사합니다.

